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423km 대장정 회향...순례길 여는 출발점 섰다

呂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① 승인 2021.10.22 15:17 |
 ㉠ 호수 3688 |
 ㉡ 댓글 0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순례
 불교중흥 씨앗 틔워 '디딤돌'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8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원만 회향했다. 천리순례단이 강가를 지나고 있다.

불법승 삼보사찰을 걸어서 순례하는 18일간의 대장정이 10월18일 막을 내렸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화엄사, 실상사를 거치며 전남에서 전북으로, 다시 경남으로 지리산을 두 번 넘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거쳐 영남의 가장 험악한 산악지대 사자평까지 넘어서며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순례의 원력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되새겼다.



불교신문TV

더보기>

[산사의 미소] 따뜻...



[산사의 미소]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

포토뉴스



섹션별 최신기사

중단 "불교 등 종교특성 잘 살린 순례길...
 전국 "찾아가는 사찰음식 도시락 먹고 ...
 사회&국제 미얀마 위수파스님 등 제18...
 인물 [인터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
 대중공사 [여시아문] 푸른 모래의 포구

"SNS에서
뉴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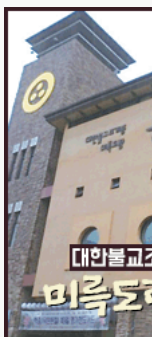


불교신문TV

[산사의 미소]

많이 본 기사

- 1 제2회 탄허학술
- 2 9000일 기도 회
- 3 교구본사주지훈
- 4 [서울국제불교
- 5 '경내지 불법 취
- 6 [서울국제불교
- 7 "승가화합이 제
- 8 불교문화사업단
- 9 [서울국제불교
- 10 금우당 인각대



최신뉴스

- 미얀마 위수파스님...
- 유과 판매 수익금으...
- 지구촌공생회, '굿해...
- "불교 등 종교특성 잘...
- 법정스님 무소유 사...
- 화엄사 목조비로자...
- [죽음을 철학하는 시...
- "일념삼매 들어 부동...
- "찾아가는 사찰음식...
- 고흥 수도암 대웅전...

5개 광역시도와 12개 시군을 거친 423km는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다. 천리순례라는 이름처럼 국토의 3분의1을 걸었다. 108명의 순례대중과 지원단을 합치면 150명. 매일 참여한 일일참가대중을 더한다면 하루 평균 200명이 움직였다.

삼보사찰 순례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찰을 찾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과 원력의 길을 걷고자 함이었다. 험준한 산을 넘는 고난에 버금가는 찾길의 위험, 며칠이나 이어진 비바람과 오들오들 떨어져 했던 급작스런 추위도 순례단의 발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리더십이 그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순례를 이끌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례단 한사람 한사람의 짓무른 발을 어루만졌다.

순례단은 몸은 고됐으나 18일의 걷기순례를 통해 팔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간절한 원력의 힘을 체험한 점이다. 이 한 몸 부서져도 원력을 이루기 위해 해낼 수 있고, 그 원력이 대중으로 모아진다면 그보다 더 큰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래 한국불교에 희망의 다리를 짓는 불사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제 18일 대장정의 대미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마주한 벅찬 감동을 모든 불자, 나아가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불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막을 내렸으나, 순례길을 새로 여는 출발점에 선 것과 다름 아니다.

회주 자승스님의 말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보는 이들이 신심과 원력을 내서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순례 내내 스님들은 여법하게 가사를 수하고 재가자들 또한 순례 가사를 입은 후 한 줄 행선을 유지했다.

수행&신행 유과 판매 수익금으로 학생...
문화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
기획&연재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37...
출판&문학 신라 고승 원효스님 '해골물...
학술&문화재 법정스님 무소유 사상은 ...
복지&상담 영주장애인복지관 연탄 1만...



첫 출판본 《불교성전》
- 종정 법어, 총무원장 김...
초기경전, 대승경전, 선어록을 <...
불교 문명에 감이름 되었다. 불...
부처님 입장에 설계 접근할 수!

법공양 (기획PR)



세무사
이상인
세무회계 상담
조계종 다수 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



참가 대중 대부분 "사부대중의 힘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순례 도중 물을 마시며 한 숨 쉬어가고 있는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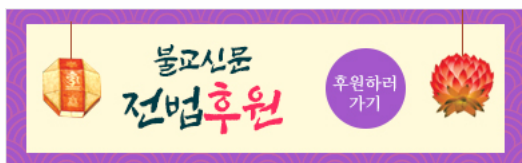
험준한 찻길과 고갯길을 건너야 하는 순례길이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① 달라지고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
- ↳ "부처님처럼 길에서 걷고, 길 위에서 잠을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
- ↳ 어느새 두돌 맞은 상월선원...'새로운 불교...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